한국과 다르네

아시아국가들 메르스 대책 마련 분주

필리핀, 한국 상황 모니터링·예방책 배포···말聯·베트남, 한국 방문 자제 권고

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확산 사태가 지속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 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.

필리핀 정부는 7일(현지시간) 서울 주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필리핀인에게 메르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을 배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.

필리핀 정부는 한국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 고 있다며 한국 내 필리핀인들에게 모든 필요한 예방책을 취하 라고 당부했다. 한국에는 최소 5만5000명의 필리핀인이 거주하 는 것으로 전해졌다.

말레이시아 정부도 자국민에게 당분간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 을 권고했다고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. 힐미 야하 야 말레이시아 보건차관은 7일 "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보통 3주일로,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열이 없더라도 주 의해야 한다. 3주일 안에 어떤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신고하고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도 메르스 발병국에 관광객을 보내거 나 발병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여행업계 에 권고했다.

베트남 보건부는 메르스 감염 의심이나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4개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.

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8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(北京)과 닝샤(寧夏)회족자치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7차 한중 고위언론 인 포럼을 무기한 연기했다.

홍콩에서도 한국 평택성모병원 등을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들 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자 홍콩기자협회가 유행병 취재 지 침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. 기자들은 7일 검 사에서 메르스 음성 반응을 보였다.

홍콩 보건당국은 최근 한국 서울 여행 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이 7일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자 격리한 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.

미생물학자인 호팍렁(何柏良) 홍콩대 교수가 한국에서 메르스 가 발발 한 지 2주 이상 지난 뒤 메르스 감염자가 치료받은 병원 명 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"터무니없다.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으로



확산할 수 있다"고 지적하는 등 일부에서는 한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있다.

그러나 중국과 홍콩 당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을 통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.

중국과 홍콩에 격리된 75명과 19명도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 으면 잠복기가 끝나는 9일께부터 격리 관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국과 닮았네

양쯔강 유람선 사고…선박 설계·건조 '베일'

440여 명이 사망·실종하는 '대참사'가 된 중국 양쯔(揚子)강 유람선 침몰사고는 천재지변과 인간의 탐욕,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비극인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.

7일 중국 신경보(新京報)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사고선박인 '둥팡즈싱'(東方之星) 관계자들과 이 선박을 소유한 등팡(重慶 東方)윤선공사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, 이 선박을 누가 설계하 고 건조했는지조차 베일에 싸여 있다.

일부 중국언론은 '둥팡즈싱'은 둥펑(重 慶東風)선박공업공사가 설계하고, 푸링 촨둥조선소가 건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 다. 그러나 푸링촨둥조선소는 '둥팡즈싱' 은 자신들이 건조한 선박이 아니라고 부 인한다. 이들은 단지 1992년 600명을 태 울 수 있는 두 척의 여객선 골격을 건조해 둥팡윤선에 넘겨준 일이 있을 뿐이라고

유한 조선소에서 스스로 건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.

신경보 측은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을 종합해 볼 때, 둥팡윤선이 푸링촨둥 등으 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선박 구조물을 자 신들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결합해 여객 선으로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.

또 둥팡윤선은 이런 방법으로 4년 간 '둥팡즈싱'을 포함해 6척의 '둥팡' 시리즈 여객선을 건조했다고 덧붙였다. 그러나 당시 둥팡윤선은 '둥팡즈싱'과 같은 규모 의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 다. 둥팡윤선는 당시 길이 60m·적재량 2000t 이하의 선박만 건조할 수 있었지 만, '둥팡즈싱'이 건조됐을 당시의 길이와 적재량은 각각 66m, 2200t이었다.

푸링촨둥 관계자는 "사건이 발생한 이 후 둥팡즈싱의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봤 는데, 완전히 다른 두 척의 선박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건조했던 선박골조와는 완전히 완전히 달랐다"고 말했다. 신경보 는 "그같은 선박건조 방식을 선택한 동기 는 비용 절감이었다"고 지적했다.

둥팡윤선이 건조했던 '둥팡다디'(東方 大帝), '등팡즈주'(同方之珠), '등팡왕차 오'(東方王朝), '등팡왕쯔'(東方王子) 등 '동방' 시리즈는 그동안 하나같이 크고 작 은 선박 사고에 휘말렸다. 1997년 '둥팡즈 주'는 양쪼강 시링사(西陵峽)에서 선박 충 돌 사고가 났고, '둥팡왕차오'는 선박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해 2001년 운항 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.

'둥팡왕쯔' 역시 2000년 암초에 충돌하 는 사고가 났고, 이번에 침몰한 '둥팡즈 싱' 역시 2008년 4월 14일 다른 여객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. 그런 와 중에서도 둥팡윤선은 1997년 '둥팡즈싱' 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유람선으로 투입

또 평평한 모습이었던 선미는 뾰족하게 바뀌었다. 기름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였 다. 신경보는 등팡윤선과 검사기관 간부들 이 밀접하게 왕래하는 등 사실상의 특수 관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.

/연합뉴스



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엘마우의 주요 7개국(G7)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(왼쪽)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가 7일(현지시간) 실무 만찬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다. /연합뉴스

터키 집권당 과반의석 실패

단독 정부 구성·대통령제 개헌 무산 가능성

7일(현지시간) 치러진 터키 총선에서 집권 정의개발당(AKP) 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.

터키 반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에 따르면 개표율 99.4% 상황에 서 AKP 득표율은 40.8%를 기록했다. AKP는 이 득표율로 전 체 의석 550석 가운데 과반(276석)에 못미치는 259석만 얻을 수 있다. 이어 공화인민당(CHP) 25.1%, 민족주의행동당(MHP) 16.4%, 인민민주당(HDP) 12.8% 등으로 집계됐다. 쿠르드계 정 당인 HDP는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득표율인 10%를 넘겨 78 석을 확보했다. 비례대표제인 터키 총선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 이 10% 이상인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며, 10% 미만 정당의 득 표는 사표로 처리되고 1위 정당에 추가로 의석을 배정한다.

따라서 HDP 득표율이 10% 미만이었다면 AKP가 추가로 60

► NAVER 주소(0) 대산프리모 • 라

석 정도를 배정받아 과반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.

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AKP는 2002년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13년 동안 단독정부로 집권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 실패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한다.

그러나 3개 야당이 모두 AKP와 연정을 거부해 상황에 따라서 는 조기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.

개정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.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리직 11년째였던 지난해 8월 사상 첫 직선제 대선에서 승리하고서 대 통령제 개헌을 역설해왔으며 AKP는 대통령제 전환을 총선 공 약으로 내걸었다. 대통령제 개헌 시험대로 여겨진 이번 총선에 서 AKP가 1위를 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는 물론 단독으 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게 됐다.

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종전의 간선제 대통령들과 달리 현 행 헌법에 보장된 내각회의 소집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 으로 행사하는 '준(準) 대통령제'를 실행하면서 새로 출범할 연 정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.

500m

大山프리모기발

미·일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

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해상 배 치형 요격 미사일의 발사 실험이 성공했 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발표했다.

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미국 로 스앤젤레스 근교의 미국 해군 포인트 머 그 사격장에서 미사일방어(MD)의 일환 으로 미・일이 공동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'SM3블록2A'의 첫 발사실

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. 두 나라는 탄두 등이 장착되는 미사일 앞부분인 노즈콘 과 진로제어, 추진로켓 분리 등의 성능을 실험했다. 타깃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 으며 실제 요격 실험까지는 진행하지 않

'SM3블록2A'는 현재 해상자위대의 이 지스함에 탑재돼 있는 '블록1A'의 개량

형으로 사정과 명중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2006년도에 공동개발 을 시작했다. 2017년께 개발을 마친 뒤 해 상자위대에 배치할 예정이다.

개발사인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은 블록2A가 더 큰 로켓 엔진과 더 효과적인 킬 비히클(kill vehicle: 미사일 충돌체) 을 장착해 더 신속하게 미사일 위협에 대 응하고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거리 미사 일의 위협에도 대처해 더 넓은 지역을 방 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

원장이수채 011-607-5330

